

연금·신탁·헬스케어까지… 은행, ‘액티브 시니어’ 공략 강화

50세 이상 ‘제2베이비붐’ 세대
청년들 보다 경제력 갖춰 주목
국민, 헬스케어 연계 자산관리
신한,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은행들이 액티브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50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제2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로 인구가 많고, 청년들 보다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 신탁, 절세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시니어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부서를 신설해 자산관리·연금서비스·상품개발·마케팅 등의 업무를 계획·수행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자산관리(WM)에 요양컨설팅을 도입하고, 시니어 세대를 위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 KB골



주요 은행들이 시니어를 겨냥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고령층 특화은행 효심 영업점.

/우리은행

드라이프케어 ‘요양원’과 ‘실버타운’을 통해 시니어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와 관련한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민은행의 개인연금, 신탁 등의 자산관리 업무와 보험사의 헬스케어, 요양 서비스를 연계해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무게를 둔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해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뱅킹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업점에는 디지털 금융 도우미를 배치해 고객이 모바일 앱이나 자동현금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 50+ 걸어요’ 서비스를 개선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 50+ 걸어요는 만 50세 이상의 고객들이 8899보 이상을 걸으면 캐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한 예금 저축왕 적금’과 ‘패밀리 상생 적금’을 통해 최고 연 9%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직 시니어 계층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이들은 하나은행의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에

수입차·전기차 330만대… 車보험 손해율 90% 육박

고가 부품에 수리비도 비싸
전기차는 배터리 리스크까지
업계 “요율체계 손질 시급”

자동차보험 시장이 ‘비싼 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입차와 전기차가 330만대에 육박하면서 건당 수리비가 치솟고 대형 손보사 평균 손해율은 90% 선을 위협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부품 가격 공표, 자기부담금 확대, 전기차 전용 요율 체계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5%로 한 달 만에 6.5%포인트(p) 급등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0조6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97억원 적자다. 보



Chat GPT가 생성한 수입차·전기차 이미지.

험료 수입이 줄고 사고 건수가 늘어난 데다 고가 부품 교체가 많아진 결과다.

손해액을 키우는 주인공으로는 수입차와 전기차 꼽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수입차는 292만대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전기차는 36만6000대로 36%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의 차값이 비싸 부품비와 수리비가 더 든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수입차 1건당 수리비 보험금은 국산차의 2.6배, 부품비만 보면 3.7배

에 달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단품 가격이 수 천 만원에 이르고 경미한 충격에도 모듈 전체 교체가 필요해 내연기관차(ICEV)보다 평균 수리비가 20% 높다.

또한 차량수리비를 구성하는 부품비·공임비·도장비 가운데 최근 10년간 부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수리비 전체 상승률(3.7%)을 웃돈다. 특히 수입차 범퍼 가격은 지난 2022년 한 해 13.8% 뛰어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를 기록했다.

제조사가 헤드라이트·센서를 모듈 단위로만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분 수리’가 어려워진 것도 비용 폭등의 원인이다. 실제로 전조등 커버만 파손돼도 모듈 교체 시 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9배 가량 상승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배터리 리스크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손상 시 3000만원 이상이 한 번에 지출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돌·요철 충격

에도 취약해 전체 교체 빈도가 높고 부품 운송·보관 과정의 화재 위험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용은 내연기관차보다 20% 높고 평균 수리 기간 또한 14%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기차 수리에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배터리 가격이 높은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수입차와 전기차에 대한 비용 구조 손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차 부품비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잡히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의 적자 고리는 쉽게 끊어지기 어렵다는 것.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듈화된 제품의 공급단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보험 10건 중 3건 2년 내 해지됐다 불완전판매는 개선

지난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면서 3년 이상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비율과 설계사 정착률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됐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37회차) 유지율이 50%대로 하락해 5년(61회차) 유지율은 46.3%에 그쳤다. 생명보험의 경우 저금리 시점(2021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해지 등으로 3년 차 이후부터 방카채널 유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5%로 지속 개선 추세를 보였다. 생·손보 간 차이도 지난 2020년 0.111%포인트(p)에서 2024년 0.036%p로 축소됐다.

작년 보험설계사 수는 65만 1256명으로 전년(60만 3974명) 대비 7.8%(4만 7282명) 증가했다.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p 상승했다.

금감원은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1년, 2년), 불완전판매 비율 및 설계사 정착률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등 판매채널의 효율성이 제고됐다”면서도 “유지율은 해외보다 약 20%p 낮고 3년 이상 장기 유지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지율 미흡 보험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유지율 개선 계획을 징구할 것”이라며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분양가 오르니… 실수요자 공공택지 아파트로 몰린다

분상제 적용돼 분양가 부담 적어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09.7대 1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데다 상업지구와 학교, 공원 등이 같이 체계적으로 개발돼 주거 편의성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9.7대 1로 집계

됐다. 일반공급 152가구에 1만6000건이 넘는 접수가 몰렸다. 경기 고양창릉지구 역시 S5블록 전용 84㎡에서 최고 4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택지개발사업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단지와 함께 공원, 상업지구, 초·중·고교 등의 인프라가 구획을 나눠 계획적으로 조성돼 신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부담도 적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체계적인 도

시 계획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교통망 확충 개발 계획 등이 많아 추후 시세 차익까지도 노릴 만 하다”고 전했다.

대우건설·LH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지구 A-2BL(천현동)에서 분양하는 ‘교산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본청약을 이달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다. 전용면적 51~59㎡ 총 1115가구를 사전청약 당첨자(본청약)와 일반에게 공급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사업으로 진행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

용됐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로 공급되며,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A76-2BL에서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 동, 전용면적 84·97·142㎡ 총 1524가구 규모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사업으로 공급되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동탄호수공원과 장지1호공원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인접해 있고, GTX-A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 추진 및 2028년 개통 예정인 동탄트램 208정거장이 단지 앞에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